

인권교육회의
- 국제인권교육센터 워크숍

인권과 교육

알레한드라 나프탈 [ESMA 기억박물관 관장]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알레한드라 나프탈 (Alejandra Naftal)이고 남아메리카의 남부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우선 제 10 차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주최자 분들, 특히 아만다 플레티 마르티네스 (*Amanda Flety Martínez*) UCLG 사회적포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UCLG CISDPH,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Committee of Social Inclusion, Participatory Democracy and Human Rights*) 코디네이터에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직면한 도전에 대해 성찰하고 인권 침해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에 대해 예방하고 경계하며 토론하고 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표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최고 권위자들이 우리를 방문했고 2019년에는 광주 비엔날레 대표 김선정씨와 그의 팀 동료 예술가들과 공동 작업자들을 맞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구 ESMA(*Museo Sitio de Memoria ESMA*, 구 시립기념박물관*)에서 비엔날레를 조직하기 위해 일주일 넘게 함께 일했던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 역주 : 원래 각종 고문이 행해지던 곳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지구촌을 덮친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아르헨티나 예술가들이 광주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1976 년에서 1983 년 사이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극단적 시민군사독재 시절 우리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비밀 구금과 고문, 말살의 중심 장소 중 하나였던 해군의 교육장이었던 곳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가 테러로 인해 약 3 만명의 구금된 실종자, 수천 명의 정치범과 추방된 사람들, 그리고 수감된 어머니에게서 탈취하여 거짓 신분으로 양육된 5 백명 이상의 아기 등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우리가 인권단체 '*the Grandmothers of Plaza de Mayo*' 와 함께 아직도 찾고 있는 살아있는 실종자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SMA 가 기억과 인권 옹호의 공간으로 변모한 것은 우리가 기억, 진실, 정의라고 부르는 과정에서 희생자들의 어머니, 할머니, 자녀, 친인척들을 포함한 아르헨티나 국민들과 인권단체들의 40 년간의 오랜 투쟁의 결과입니다.

ESMA 박물관과 기억의 장소는 인권 침해 재판에 있어 물리적, 물질적, 사법적 증거일 뿐 아니라 국가 테러 행위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해군은 그곳을 완전히 버림받고 훼손된 채로 시설을 넘겨 주었으며,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는 생존자들의 증언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군 당국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금되어 실종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공포와 비극의 장소를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기억, 전달 그리고 유산의 장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박물관의 주요 목표는 여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교육과 지식에 기여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곳을 걷는다는 것이 가까운 과거에 어떻게 그런 야만적인 행위가 가능 하였는지에 대한 반성과 토론 및 질문을 자극하는 다양한 장치를 통해 정보와 감정을 표현하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관 5 년이 지난 이제 ESMA 박물관과 기억의 장소는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장소로 자리하고 있으며 오늘까지 거의 40 만명에 이르는 다양한 방문객들이 (대부분 고등학생과 대학생) 다녀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 "ESMA 에서의 여성 - 다시 돌이켜 보는 증언(*BEING WOMEN AT ESMA-Testimonies to Look Again*)" 전시회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는 이런 기억 공간이 가지는 준 교육적 힘과 오늘이 과거에 질문을 던지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행동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5 년 개장 이후 여러 페미니스트 운동가 그룹은 상설 전시 대본에 성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박물관을 방문한 여학생들과 지난 4 년 동안 행사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았으며, 우리 투어 가이드와 지원 데스크 직원들도 이 관점을 투어에 포함시킬 것을 이사장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제안을 환영하는 방침을 정하고 교육 프로젝트로 국제 양심 사이트 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종합 팀을 구성하여 1 년 반 동안 역사, 정치적, 사법적 맥락에서 여성의 투쟁을 설명하고 ESMA 생존자의 법원 증언, 특히 강제 수용소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증언을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독재 정권의 비밀 장소에서 저질러진 비인간적 성범죄의 심리에 노력했던 여성 변호사, 검사, 판사들의 최종 변론도 포함시켰습니다. 다큐멘터리 자료집을 얻은 후에는 모든 박물관 전시회에 일반적인 방법론 채택으로 합의를 구축하고 앞서 언급한 모든 행위자들과 대화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ESMA 에서 다양한 형태로 저질러졌습니다. 임신한 여성을 감금된 상태에서 출산하도록 몇 달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부터, 다른 여성들을 마치 그들이 "이념적으로 회복된" 죄수들인 것처럼 한밤중에 일어나 해군 장교의 에스코트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기억과 독재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여성들이 피해자인 동시에 적극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런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 이끄는 아르헨티나 인권 운동은 오늘날 "*Ni Una Menos*"^{*} 같은 아르헨티나 여성 운동과 그들의 활동과 투쟁에 대한 등대로 볼 수 있습니다.

* 역주 : "Not One Woman Less"

"ESMA 에서의 여성 - 다시 돌이켜 보는 증언 (*BEING WOMEN AT ESMA-Testimonies to Look Again*)" 전시회는 여성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폭력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9년 3월 개관한 이 전시회는 대중적 수요에 의해 6개월 더 연장되어 국내외를 다니며 가정폭력, 성적 불평등, 종합 성교육 같은 현안들을 교사들이 다루기 위해 또 오랜 세월 침묵을 지켜온 어린 소녀들과 여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교육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는 국가 테러리즘과 탄압에 대한 기억이 근본적인 민주적 합의의 일부가 될 정도로 아르헨티나 사회의 기초가 되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장소들이 필요하다고 믿으며, 그것은 그들이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발표가 40년을 넘게 가라앉지 않는 아르헨티나 국민들 투쟁의 표본일 뿐이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가 위험한 순간에 현재를 비추는 빛의 광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억의 공간이 가치와 경험의 전달에 기여할 수 있는 비 형식적인 교육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저는 ESMA에서 충분히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국가 테러 행위, 강제 실종 및 정의를 위한 평화로운 길을 위해 아르헨티나가 경험한 높은 보편적 가치를 고려하여 ESMA 박물관 및 기억의 장소를 - 이전에 비밀 구금, 고문 및 근절 중심지였던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는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전파하고 보다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기회와 도구를 창출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